

판소리를 통한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 방안 연구

- 한국어 고급학습자를 중심으로

서유석 · 박현숙*

1. 머리말

본고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판소리를 통한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달성하기 위해 그간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통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보도록 한다. 문화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전통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온 바 있지만, 전통을 가르쳐야 한다는 당위성 이외에 왜 전통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전통문화가 왜 반드시

전통이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당대의 필요에 의해 그 의미가 바뀌어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내에서 전통문화 교육은 현대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 더 나아가 지금의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한국적인 전통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그치는 전통문화 교육은 단편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그치거나 한국적인 것만이 우수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전통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면, 실제적인 전통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해야 함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전통문화 교육을 위해 판소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전통적인 것’들을 생각해보면 실상 판소리 말고 더 다양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본고가 판소리에 주목하는 것은 판소리가 단순히 조선후기에 등장하여 지금까지 공연되는 전통 예술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소리는 문학이면서, 음악이고, 동시에 하나의 독립된 연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판소리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판소리는 지금 바로 이 시대의 근간을 형성하는 한국의 ‘근대(近代, Modern)’의 가장 화려한 예술적 성취 중 하나이며, 판소리가 보여주는 ‘전통적인 것’들은 지금 ‘한국 현대 사회(現代, Contemporary)’에서도 충분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판소리의 사설, 음악, 연행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판소리 전체가 보여주는 커다란 주제의식인 충(忠), 효(孝), 열(烈)은 판소리가 성립되고 한창 유행하던 당대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주제의식은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판소리는 그 자체로 전통문화 교육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 판소리 사설은 당대의 다른 문예물과는 달리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하고

* 한라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있다. 동시대 문예물인 고소설에서 당대인들의 일상적 삶에 대한 묘사, 특히 의식주 전반에 대한 묘사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에 비해 판소리는 이러한 삶의 양태를 묘사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즉 판소리는 당대인의 일상과 실제에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판소리 사설이 묘사하는 당대 사회의 의식주의 실제 모습은 그 자체로 전통문화 교육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

본고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판소리의 특성을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강의 계획과 실제 수업에서 사용 가능한 개별 수업 목표와 학습 활동까지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마지막 연구 목표이다. 이러한 연구가 의미 있는 결과를 이룬다면, 판소리 작품 하나를 통해 한국어 고급학습자에게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어 문화 교육’ 전반을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2. 한국어 교육에서의 전통문화 교육의 의미

한국어 교육 내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박영순, 김정숙, 백봉자의 연구는 앞선 시기에 한국어 교육 안에서 문화 교육의 분리 혹은 그 필요성을 역설한 예라 할 수 있다.¹ 이후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실제로 각 대학의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 내에서 문화 교육의 반영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연세대 교재는 중급 이상에서는 ‘문화 해설’란은 따로 두고 각각의 ‘한국 문화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연세대 교재는 소위 ‘한국 현대문화’와 ‘한국 전통문화’가 구별되어 있어 전통문화 교육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의 문화와 전통문화를 완전히 구분하고 서로 다른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현대인들이 영위하는 일상 속의 전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뚜렷이 구분되지 못하는 한계 또한 찾을 수 있다.

이화여대 교재는 중급이상의 난이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4권에서 한국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전통문화는 현대문화와 별개의 것으로 보이게 설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나마 한국어 문화 교육이 교재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경희대 교재이다. 경희대 교재는 초·중급까지만 ‘한국문화’를 영역으로 명시하고 있고, 고급에서는 다른 구분이 없다. 오히려 고급부분은 대부분 ‘한국문화’를 교재의 중심에 두고 있어 매우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어 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교육’은 소위 ‘현대 문화’와 ‘전통 문화’를 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¹ 박영순(1989),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 『이중언어학』 6, 이중언어학회.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 한글』 10, 한글학회.

백봉자, 손연자, 조향록(1997), 「신교재 개발 연구 조사에 관한 최종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부 국어정책과 연구 과제.

본고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현대 문화’와 ‘전통 문화’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전통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다. 전통은 시기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할 수도 있고, 그 형태가 변화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당대에는 훌륭한 전통문화라 여겨지던 것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격하될 수도 있고, 혹은 그와 반대로 당장 바꾸어야 할 나쁜 전통이 다른 시대에는 훌륭한 것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은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²

전통, 그리고 전통문화에 관해 주목할 수 있는 논의로는 홉스봄이 있다. 그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다시 전통(Traditional)과 관습(Custom)으로 구분한 바 있다. 즉 전통은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한 가치와 행위 규준을 반복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과거와의 연속성을 내포하는 것인데 비해, 관습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며 관습의 근원이 사라지면 그 관습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³

그렇다면 현재 한국어 교육의 문화 교육에서 ‘전통’과 ‘관습’의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인 스스로가 ‘전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현재 그 전통의 ‘관습’이 변화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지 모른다. 일단 한 가지 사례만을 들어 이를 설명해 보도록 한다.

해마다 음력 정월 대보름 전날 ‘쥐불놀이’를 하는데, 농촌에서 논밭 두렁 등의 마른 풀에 불을 놓아 모두 태우는 풍습으로 ‘논두렁 태우기’라고도 한다. 이날 불을 놓으면 모든 잡귀를 쫓고 액을 달아나게 하여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음력 8월 한가윗날 밤에, 곱게 단장한 부녀자들이 수십명씩 일정한 장소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원형으로 늘어서서, ‘강강술래’라는 후렴이 붙은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돌면서 뛰노는 놀이를 한다. 강강술래를 할 때는 목청이 좋은 여자 한 사람이 가운데 서서 앞소리(선창)를 부르며,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사람들은 뒷소리(합창)로 후렴을 부르며 춤을 춘다.⁴

‘쥐불놀이’와 ‘강강술래’는 분명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가 맞다. 하지만 이러한 민속놀이를 하는 ‘전통’은 유지되고 있지만, 이 ‘전통’의 ‘관습’이 아직까지 유효한지는 분명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정월 대보름과 추석이라는 전통은 아직까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유효한 전통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대보름과 추석을 기리는 관습들에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농업을 주요 산업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은 현실 점에서 무형문화재로까지 지정된 강강술래를 구태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의 ‘전통문화’ 혹은 ‘민속놀이’로 설명할 필요가

²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장문석 역(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19쪽.

³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장문석 역(2004), 17~44쪽.

⁴ 이준희·신호철·이현희(2012), 『고급편 한국어의 어휘와 문화』, 소통, 175~175쪽.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한국인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취불놀이’ 보다는 대보름에 많이 먹는 오곡밥이나 부럼에 대한 설명 필요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한국어 문화 교육 전반에 있어 ‘전통적인 것’들이 유난히 강조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항록은 한국어 교육에서 흔히 ‘문화’라고 하면 전통적인 것, 예술적인 것에 치중하여 과거 지향적으로 변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⁵ 민현식 역시 현대 생활문화의 실태와 연계되지 않은 전통문화 소개에 치우친 현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⁶

하지만 문화 전반에 걸쳐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구분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문화에 대한 정의와 분류는 연구자들마다 그리고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화가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세부적 분류 기준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누거나 혹은 일상적인 것과 예술적인 성취를 얻어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⁷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을 어느 시점부터를 소위 ‘현대’와 ‘전통’으로 나눌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통이란 것이 발명될 수 있고,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소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구분은 의미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충분히 지금 이 시점에 살아 숨 쉬고 있다면 그것을 굳이 ‘전통’이라는 것으로 제한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옛 것’이라고 해서 이를 ‘전통문화’라 생각하고 한국어 문화 교육의 범위 안에 포함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결국 한국어 교육 내에서 전통문화 교육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전통이라고 인정받고 동시에 관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은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⁵ 조항록(2004),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1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8쪽.

⁶ 민현식(2006),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3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48쪽.

⁷ 일상적인 문화를 Little c, 고급 문화를 Big C로 구분해서 부르는 기준은 Brooks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이후 많은 학자들의 구분도 그 기준은 다양하지만 일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Brooks, Nelson(1975), “The Analysis Foreign and Familiar Cultures”, Robert Lafayette ed., *The Culture Revolu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Lincolnwood, ILL : National Textbook.

다. 또한 전통이 유지하고 있는 관습 또한 변화가 가능한 것들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내에서 전통문화 교육은 반드시 지금 이 시점에 살아 숨 쉬는 전통문화에 대한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전통문화’는 단순한 옛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점에서 전통과 관습이 모두 유지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금의 시점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문제는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관소리에 놓이게 된다. 관소리에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전통문화’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관소리가 보여주는 ‘옛 것’들 중에서 전통의 의미를 지니면서 현재까지의 관습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는 관소리가 한국어 문화 교육 내에서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중요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그 가치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3. 관소리와 한국어 교육에서의 전통문화 교육

한국어 문화 교육 내에서 전통문화 교육의 의미는 앞의 장에서 재정립한 바 있다.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전통문화 교육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해야 함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관소리가 정말 그러한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의 소재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관소리가 성립된 시기는 늦어도 18세기로 추측된다. 18세기는 영·정조 시대로 소위 조선후기 문예부흥기로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대는 지금 한국의 전통문화의 대표적인 유산들로 꼽히는 문예물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던 때이기도 하다. 관소리뿐만 아니라 탈춤, 사설시조, 풍속화 등,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문예물들은 전시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당대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예리하게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 시대에 등장했던 새로운 문예물들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소중한 유산이자 지금까지도 의미 있는 지금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 시기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들 중에서 관소리가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관소리는 분명 한국적인 문화 예술적 성취가 분명하다. 하지만 관소리가 이 시대 한국어 문화교육에서 중요한 쓰임새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관소리가 관념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조선후기 삶의 일상과 인간의 몸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소리는 문학이면서 음악이고 동시에 연행이기 때문에 관소리 사설이 보여주는 문체는 동시대의 고소설과 전혀 다르다. 관소리는 당대 일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즉 다른 문예 갈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의식주에 대한 묘사가 매우 탁월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여러 놈덜니 들어안 각기 음식을차지디이고 어먼니빅곱 못살게 흰밥 속
커 짓고기장국의 밥 마라쥬계 쏘 혼 놈 니다르며 논 거기 호쵸7로느 만

니 너어쥬게 혼 놈 느다라 익고 어만니 느는 으모 것도 말고 섭산적 두 리치기 화치 닝면 양지마리 청장슈육 츄돌박니 어식어식 비어쥬게 니놈 덜 잠간 츄저도 갑진 음식만 츄고 안저고느 흥보 은히 이른 말니 너는 그 음식 일흠 누깁 다 ㄱ라치던야 느는 그 음식 일흠도 모른다 한츄 일 니할 제 또 혼 놈 닉드르며 익고 어먼니 음식 먹근 후는 차을 먹거야 제 증이 읍느니 굴병 너허 황다츄 혼 그릇 다려 쥬게 일나할제 혼 구석의 잇던 놈니 느니다르며 익고 어머니 저것덜은 비ㄱ 들 곱푼 그리 흥네마 년 느는 텃밭이어던 된장을 쥬고 보리밭이어던 고초방 쥬고 뉘밀 범버 보리기떡 겨죽이리도 만니 쥬게 비곡푼 느 죽거니 흥보 안히 그 말 듯고 네 말니 글읷진떡 속니 느워 못 듯갓다⁸

위의 예시는 판소리 <흥보가>에서 흥보의 아들들이 굶주림에 지쳐 흥보 아내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다. 위 예시에서는 13가지 음식의 이름이 나온다. 물론 이는 동시대 다른 문예 갈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음식들은 지금 현대 한국인들이 주로 찾고 있는 음식이라는 점이다. 개장국은 논란이 많이 되는 개고기 음식으로 된장을 푼 국물에 개고기를 넣고 끓인 국이며, 섭산적은 산적의 일종으로 꼬치구이 계열의 음식이니 이는 지금 한식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두루치기는 김치나 돼지고기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며, 화채와 냉면, 차돌박이는 지금 한식 식당의 주요 메뉴로 등장하는 것들이다. 여기까지를 소위 고급음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그 아래 부분은 매우 서민적인 음식이 나온다. 된장과 보리밥을 고추장에 비벼먹고, 메밀범벅 혹은 메밀전병이나 보리개떡은 한국 시장음식의 대표격임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전통문화란 지금 이 시점에 살아 숨 쉬는 것이야 한다. 판소리는 분명 조선후기에 처음 등장한 전통예술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화석화되어 무형문화재로 취급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판소리가 담고 있는 ‘전통문화’의 의미는 그렇게 화석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판소리가 보여주고 있는 조선후기라는 시대는 분명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의 근간이 되는 시대임이 분명하며, 판소리가 주목하고 있는 당대의 일상과 의식주 역시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또 하나 남아있다. 18~9세기 고어투나 한문어구가 가득한 판소리 사설이 과연 지금 한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소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오는 구비문학이며, 지금까지도 새로운 사설의 창작과 변개가 가능한 열린 갈래의 문예물이기 때문에 이를 현대어로 풀어낸다고 해서 전혀 어색할 것이 없다. 다음은 그 사례이다.

본을 기싱 춘향이 추천초로 의복단장 치레할 식 아릿싸은 보흔 양즈 팔 스청산 춘식으로 반분씩을 다스리고 호치단순은 솜식도화미기봉이 하로 밤 찬 이슬의 반만 썬 형상이오 잇바디는 곳이 해로다 흑운갓흔 헛투 머 리 반달갓흔 와룡쇼로 웨셔려 썩썩 흘리 빚셔 전반갓흔 넓게 싸흔 쯤지 향느 너른 당기 뱃시있게 드렸우나 빅져포 싹기적습 보라디단 속저구리

⁸ 김진영, 김현주 역주(1997), 「오영순소장 장흥보전」, 『흥보전』, 도서출판 박이정, 52~55쪽.

물면주 고장바지 빅방슈화주 너른 바지 광월스 것마이 남봉항느 디단치
마 잔살 잡아 썰쳐 입고 비단낭즈 삼승보션 자지상직 슈당혀를 날 출즈
로 제법 신소 입히는 뽀족절 뒤히는 금봉츠 손의 옥지환 귀에는 월기탄
이오 노리기 더욱 조티⁹

춘향은 그네를 뛰러 나가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얼굴을 꾸미고 있었습
니다. 먼저 아리따운 얼굴에 아리따운 눈썹으로 얇게 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렸습니다. 춘향의 빨간 입술과 하얀 이는 하룻밤 이슬에 반쯤 피어난
복숭아꽃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검은 머리카락을 반달 모양 빗으로 살살 빗어 땀났습니다. 머
리 끝에는 자줏빛 땀기를 맵시 있게 묶었습니다.

옷도 비단으로 만든 것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치마에는 잘게 주름을 잡
아 입고, 무명으로 만든 버선을 신었습니다. 발에는 자수를 놓은 신발을
신었으며, 손가락에는 옥으로 만든 반지를 끼고 귀에는 귀걸이를 끼었습
니다.

허리 아래로는 주렁거리는 노리개를 매달았습니다. 옥으로 만든 낙은 칼
에는 화려한 술을 달아 다섯 색깔 비단실을 꿰었습니다. 이렇게 꾸미고
나니 누가 보아도 마음을 빼앗길 만한 모습이었습니다.¹⁰

위의 첫 번째 예문은 「경관 30장본 춘향전」이며, 위의 두 번째 예문은
이를 현대어로 풀어 한국어 읽기 교재로 변형한 것이다. 이렇게 원문의 뜻
을 살려 현대어 바꾸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관소리 특유의 어
투나 문체가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관소리 어투 그 자체를 한국어 교
육의 중요한 소재로 삼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본다.

춘향의 의복을 자세히 묘사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여성 한복의 옷
맵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한국 TV 사극에서 볼 수 있는 아리따운
여성 한복의 자태가 글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그림¹¹에서 없은머리를 제외하면 지금 현대 여성 한복과 조선후기 여성
한복은 큰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노리개의 위치나 술의 위치, 혹은 옷고름
과 회장저고리와 같은 여성한복의 특성과 의미들은 관소리를 통해, 그리고
이를 시각화한 자료를 통해 지금 이 시점에도 의미 있는 한국의 전통이 무
엇인지 뚜렷이 보여줄 수 있다. 즉 관소리가 가지고 있는 당대 일상에 대
한 높은 관심은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소재
가 될 수 있는 셈이다.

⁹ 김진영 외(1997), 「경관 30장본 춘향전」, 『춘향전 전집』 4, 도서출판 박이정, 48쪽.

¹⁰ 서유석 외(2008), 『춘향전과 한국문화』, 도서출판 박이정, 57~58쪽.

¹¹ 서유석 외(2008), 『춘향전과 한국문화』, 도서출판 박이정, 66쪽.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이다. 판소리는 서민들의 예술에서 출발하여 상층의 고급예술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판소리는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다양한 삶의 양태와 아울러 당대 사회가 요구하던 삶의 가치와 사회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문제는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대의 의미망과 동일한 모습은 아니겠지만, 충(忠), 효(孝), 열(烈), 우애(友愛)와 같은 가치는 유교문화와 윤리가 기저에 놓여 있는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춘향전>에서 춘향이 보여주는 열녀의 모습은 물론 지금 한국 사회에 어울리는 가치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춘향이 신의를 지키는 모습, 이본별로 드러나는 다양한 춘향의 모습은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에서 한국 사회의 남녀관계나 성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자료가 분명히 될 수 있다.

<심청전>은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한국의 독특한 효(孝)사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료가 된다. 심청이 같은 효녀

의 사례는 지금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자신의 신체를 훼손해서까지 효를 구현하는 모습은 한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교육 방안은 더 자세한 논의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최소한 외국인들에게 이것이 올바른 것이든 아니든 간에 한국 효사상의 전통의 무엇인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결국 관소리는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의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관소리가 보여주는 전통적인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며, 동시에 지금 이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통문화라는 것이 이 시대에도 유의미한 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전통이라고 할 때, 관소리가 보여주는 전통문화는 외국어로서 한국어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매우 훌륭한 전통문화 교육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관소리를 통한 구체적인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4. 관소리를 통한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 방안의 실제

한국어 교육에서 유의미한 전통문화는 옛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만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함은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소리가 보여주는 전통문화는 현 시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관소리를 통한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옛 말투로 되어 있을뿐더러, 한자어구나 한시가 가득한 관소리 사설을 원전 그대로 한국어 교육에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관소리는 작가나 원전이 정해져있는 문예물이 아니다. 관소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현대어로 변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뿐더러, 개작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관소리 어투를 그대로 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관소리를 통해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을 실시할 때는 옛 말투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로 고친 사설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앞 장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문제는 관소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사들과 전통문화적 맥락들을 모두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관소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것에 집착하다보면, 오히려 기존의 전통문화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꼴이 된다. 따라서 관소리를 통한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은 현대화된 관소리 사설을 읽으면서 동시에 선별된 전통문화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소리 사설을 개작할 때 특정 이본 하나만을 대상으로 개작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교합본처럼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에 알맞은 내용을 위해 특정 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소리 5가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전통문화 교육을 위해 특정화소를 부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수업 진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수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수준 이상의 이해를 갖춘 고

급 학습자는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의 현대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판소리 5가 중 <춘향가>를 대상으로 수업 계획안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한국의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는 대개 10주 20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소리를 통한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은 전체 교육 시간에서 주 당 1회 2시간, 총 10회 20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판소리 <춘향가>를 통한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 방안의 실제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전통문화 학습활동 : 한옥의 다양한 모습
- 1주** : 제 1장 어느 봄날의 나들이 - 한국의 사랑 이야기 <춘향가>
 - <춘향가> 소개, 제 1장 읽기
 - 전통문화 학습활동 : 판소리란 무엇인가?
- 2주** : 제 2장 그네 뛰는 선녀
 - 전통문화 학습활동 : 꽃구경과 한국의 자연관
- 3주** : 제 3장 아름다운 약속을 나누다
 - 전통문화 학습활동 : 한복의 본모습
- 4주** : 제 4장 이별의 눈물을 흘리다
 - 전통문화 학습활동 : 춘향의 정절과 한국의 연애관
- 5주** : 제 5장 새로 온 사또의 심보
 - 전통문화 학습활동 : 한식의 전통과 현재
- 6주** : 제 6장 옥에 갇힌 춘향
 - 전통문화 학습활동 : 한국의 점과 미신
- 7주** : 제 7장 과거시험에 합격하다
 - 전통문화 학습활동 : 과거 시험과 교육열
- 8주** : 제 8장 다시 만난 두 사람
- 9주** : 제 9장 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린다
 - 전통문화 학습활동 : 한국의 잔치
- 10주** : 제 10장 영원한 행복의 약속
 - 전통문화 학습활동 : 나이와 서열

본 수업을 위해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춘향가>를 현대어로 바꾸고 10장으로 분절한 한국어 고급 읽기 교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¹² 따라서 판소리를 통한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은 현대어로 개작된 <춘향가>를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읽어나가면서 진행된다. 중요한 전통문화 요소들은 학습활동을 통해 진행되지만, <춘향가> 읽기를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적 전통의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각장에 배치된 ‘전통문화 학습활동’이다. 이 학습활동은 분절된 <춘향가> 서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제 7장 과거시험에 합격하다’ 부분을 읽은 뒤에는 바로 조선의 과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전통적 요소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려시대부

¹² 이러한 수업 모형 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한국어 읽기 교재를 참조하였다.
서유석 외(2008). 『춘향전과 한국문화』, 도서출판 박이정.

터 실시된 과거제도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도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한국의 대학생들은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등은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출세’의 지름길로 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그 이름을 달리하여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확인하는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 사회에서 ‘시험’이 주는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인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한국의 교육열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각각의 ‘전통문화 학습활동’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순히 ‘전통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전통’이 현대 한국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구성해야 한다. 전통은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에 따른 관습의 변화도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수업 계획을 확인하였으니 이제는 세부적 수업의 목표와 구조 그리고 활동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능력이란 매우 복잡적이다. 자신의 뜻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의사소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듯이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면서 동시에 문화 그 자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어능력이란 언어로 이루어진 ‘사실’을 아는 능력이며, 언어구사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동시에 언어를 통해 ‘의미’를 수용하여 그것을 구체화하고 그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 더 나아가 언어를 통해 ‘정체성’을 구현하는 능력이기도 하다.¹³

따라서 우리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하나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문화를 실제로 체험하고 수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즉 하나의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언어권의 문화를 ‘알고’, 그 다음 이를 ‘경험’하며, 더 나아가 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¹⁴

이는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본고가 다루고 있는 ‘전통문화’는 단순히 과거에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전통문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소리가 보여주는 과거의 전통이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학습자는 학습활동을 통해 그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경험’하며, 더 나아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전체 수업 계획 중 한 주의 수업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얻을 수 있다.

¹³ 오지혜(2007),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범주 및 구조 설계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4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94쪽.

¹⁴ 이러한 언어문화 교육에서의 지식-경험-수행의 교육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오지혜(2007), 94~96쪽.

Patrick Moran, 정동빈 외 역(2004), 『문화교육』, 경문사.

수업 주제	제 7장 과거시험에 합격하다
수업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춘향가> 7장 ‘과거시험에 합격하다’를 읽고 이해한다. 2) 과거 합격이 앞으로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본다. 3) 예전의 과거합격과 비슷한 현대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4) 몇 년씩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한국의 사례를 확인한다. 5) 한국의 국가시험과 한국의 교육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전통문화 지식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과거가 어떤 제도였는지 알아본다. · 과거 합격자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 지금 한국인들에게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와 같은 시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 시험의 연속인 한국의 교육제도와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알아본다.
전통문화 경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모국에도 한국의 국가시험과 같은 제도가 있는지 비교해본다. · 학습자의 모국과 한국의 시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본다. ·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한국인 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해본다. ·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해본다.
전통문화 수행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출세’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본다. · 한국에서 ‘시험’이 한국인들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본다. · 이른바 ‘고시’ 합격자들의 시험 전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찾아본다. · 한국인의 권위의식에 대해 논의해본다.

<춘향가>에 등장하는 이몽룡의 과거합격은 서사의 행복한 결말로 가는 중요한 사건이자, 당대 사회에서 양반층에게 과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의 과거는 그 모습만 변하였을 뿐,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춘향가>의 ‘과거’는 단순한 전통문화가 아니라 지금에도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인 셈이다.

일단 한국의 ‘고시’와 ‘시험’문화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시험’의 전통과 그 문화적 지식을 알아야 한다.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지는 한국의 대학입학시험과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교육열에 대한 지식은 어쩌면 한국적 전통에서부터 그 뿌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고시’나 ‘공무원 시험’ 더 나아가 ‘시험’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모국의 문화와 비교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외부인의 관점 즉 에티크(Etic)의 관점에서 ‘시험’과 ‘고시’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전통문화 경험 활동에 속하는 일이다. 관찰자의 시점에서 한국의 ‘시험’문화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적 언어를 이해하는데 분명한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이러한 ‘고시’와 ‘시험’의 문화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한국인 친구에게 중요한 시험일에 한국인들이 주고받는 선물의 의미를 이해하고 직접 이를 수행할 수 있다면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적인 ‘시험’문화와 아울러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높은 ‘교육열’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수업 모형은 각각의 개별적 수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판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통문화적 요소들은 그 자체로 과거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가 현대에 확장되는 상황을 직접 체험하여 학습자가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의의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전통문화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소리를 통한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분명히 어떠한 부분에서는 매우 새로운 시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발표를 끝마치면서 본고의 한계와 문제점 몇 가지를 스스로 지적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도록 한다.

필요에 의해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한국어 문화 교육의 범위 내에서 찾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통문화 교육은 문화 교육에서 현대문화와의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문화라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지금 이 시점에 살아 숨 쉬고 의미를 가질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그 문화의 해당 언어에 오롯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판소리를 통한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이 정말 한국어 고급학습자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인지도 엄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물론 필자들은 한국의 4년제 대학 한국어학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본 수업 모형의 일부를 실제로 제시한 바 있지만, 그 수업의 효율성을 엄밀히 확인해 본 적은 없다. 특히 한국어 고급학습자라 할지라도 그 개인별 편차에 의해 본 수업 모형이 매우 어렵게 다가갈 수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한 문화에 대해 알고, 경험하고 수행하는 것은 해당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어학원이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업에서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특히 외국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어 학과에서는 본 수업 모형의 마지막 부분인 ‘수행’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한영 역주(1971),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全)』, 민중서관.
- 김진영, 김현주 외(1995), 『춘향전』, 도서출판 박이정.
- 김진영, 김현주 외(1997), 『홍보전』, 도서출판 박이정.
- 김진영, 김현주 외(1997), 『심청전』, 도서출판 박이정.
- 김진영, 김현주 외(1998), 『토끼전』, 도서출판 박이정.
- 서유석, 김진영(2008), 『춘향전과 한국문화』, 도서출판 박이정.
-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 구선희·유승금(2008),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 문화 교육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9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 민현식(2006),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3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박영순(1989),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 『이중언어학』 6, 이중언어학회.
- 박준언(2012), 「외국어교육의 문화교육」, 『한국언어문화학』 9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백봉자, 손연자, 조항록(1997), 「신교재 개발 연구 조사에 관한 최종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부 국어정책과 연구 과제.
- 안미영(2008),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정신문화연구』 31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양지선(2010), 「한국어 교육에서의 민속극 활용 방안 연구」, 『정신문화연구』 33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양지선(2011),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방법론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22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오지혜(2007),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범주 및 구조 설계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4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윤여탁(2003),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1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성희(1999),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준희 · 신호철 · 이현희(2012), 『고급편 한국어의 어휘와 문화』, 소통, 175~175쪽. f
- 장소원(2012),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와 문화의 연계」, 『한국언어문화학』 9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조항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2004),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1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8쪽.
- 한상미(1999),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인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홍혜준(2004),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21집, 국어교육학회.

Patrick R. Moran, 정동빈 외 역(2004), 『문화교육』, 경문사.

Eric Hobsbawm 외, 박지향 · 장문석 역(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19쪽.

Brooks, Nelson(1975), “The Analysis Foreign and Familiar Cultures”, Robert Lafayette ed., The Culture Revolu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Lincolnwood, ILL : National Textbook.

Teach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rough Pansori Texts

Seo, You-seok · Park, Hyun-suk.

Pansori is not only a form of music and literature but also performance. That is because Pansori consists of music, performance, and literary factors. As Pansori originated from folktales, became a form of series, and was developed as novels, various Korean traditional cultural features in the late Chosun Dynasty are described in Pansori. What is more, a variety of features of Korean traditional living culture, which can hardly be found in other old novels, are identified in Pansori, for Pansori arose as Minjoong art(popular art) and became highbrow art later. Therefore, Pansori is one of valuable and authentic materials which can be used in Korean class to teach Korean traditional culture because it portrays various daily living activities as well as clothing, food, and housing.

This study aims to suggest how to teach Korean tradition culture by using Pansori in Korean teaching settings. With this purpose in mind, this article will attempt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from another spectrum and demonstrate how Pansori facilitate the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in educational settings by suggest specific and practical teaching methods.